

# 무위사에는 500년 전 전설이 전시되고 있다



## 파랑새가 그린 미완의 벽화는 훗날 국보로 불린다

월출산을 휘감은 운해가 극락보전을 감싸안았다.

다. 한 손에 염주를 들고 법당을 돌며 벽을 잃은 벽화와 벽화를 잃은 극락보전의 빈 벽을 쓰다듬어 보는 것이다. 파랑새가 그렸든 해린 스님이 그렸든 지나간 일은 모두 같은 전설이다. 풍경 소리가 울리고 목탁 소리가 들리는 전남 강진의 미술관에는 500년 전의 전설이 전시되고 있었다.

어왔다. 천불전 뒤의 산봉우리에 머물던 운해가 순식간에 도랑으로 내려왔다. 말 한번 붙여보지 못한 삼층석탑이 운해 속으로 사라지고, 애달프게 바라보던 극락보전은 지붕 끝만 섬이 되어 마당 위에 떠올랐다. 운해에 떠밀려 천왕문을 나섰다. 마지막 남은 천왕문도 운해 속으로 사라졌다. 미술관은 그날 그렇게 문을 닫았다.

극락보전의 풍경을 요란하게 울리며 불바람이 불

글·사진 = 박재원 기자 wanhollo@hanmail.net

### 오백년 불화 간직한 강진 무위사(無爲寺)

극락보전의 문은 99일 동안 닫혀있었다. 노스님과 100일을 약속했던 주지 스님은 법당 안이 너무나 궁금했다. 전설은 늘 하루를 잠지 못했다. 주지 스님은 법당 문을 열고 말았다. 법당 안에는 벽화를 그리겠다고 했던 노스님 대신 파랑새 한 마리가 입에 붓을 물고 벽화를 그리고 있었다.

주지 스님은 놀랐고 놀란 주지 스님에 놀란 파랑새는 벽화를 끝맺지 못한 채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그리고 파랑새가 그린 미완의 벽화는 훗날 국보로 불린다.

남쪽 땅은 젖어있었다. 이른 봄비 끝에 묻어온 짙은 안개와 운해가 길을 감추고 월출산 허리를 지워가고 있었다. 그 감춰진 길 끝에, 지워진 산기슭에 전설의 극락보전이 있었다. 그리고 미완의 벽화가 거기 있었다.

무위사는 신라 진평왕 39년(617)에 원효 스님이 세운 절로 500년 전에 그려진 벽화를 31점이나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미술관 같은 절이다. 그 31점의 벽화가 그려진 극락보전 역시 당대의 빼어난 건축미를 지니고 있는 국보(13호) 불전이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보물에서 국보(313호)로 승격된 후불 아미타여래삼존벽화와 후불벽화 뒷벽에 그려진 백의관음도(보물 1314호)만이 극락보전에 그대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1956년 극락보전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벽화보존각을 세워 그 곳에 봉안했다.

극락보전에 들어서면 벽화를 들어낸 쓸쓸한 벽들이 전설 속의 파랑새를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색채를 잃은 빈 벽의 쓸쓸함은 새로운 구도로 그려진 조선불화 한 폭을 감상하는 동안 잊게 된다. 험시보살을 아미타여래와 거의 나란히 세우고 나머지 공간을 6나한으로 채운 원형구도의 아미타여래삼존벽화는 험시보살을 아미타여래 무릎 아래에 그려 위계를 강조했던 2단구도의 고려불화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조선불화이다. 전설 속의 파랑새는 그 벽화에서 관음보살의 눈동자를 그리지 못했다. 전설은 여기에서 만들어진 듯했다. 관음보살의 눈동자만이 그려지지 않은 것에서 누군가 만들어낸 전설인 것 같다. 화

기(書記)에 의하면 극락보전의 벽화는 해린 스님과 선의 스님 등이 그린 것으로 되어 있다.

잠시 잊었던 빈 벽의 쓸쓸함이 결국 나머지 벽화가 봉안되어 있는 벽화보존각으로 향하게 했다. 극락보전 벽에 붙어 있어야 할 벽화들이 아프리카 초원에서 잡혀온 동물원의 동물처럼 이름표를 붙이고 유리관 안에 걸려 있었다. 아쉬운 일이었지만 볼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할 일이기도 했다. 슬픈 역사와 함께 사라진 성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극락보전에서 빈 벽의 쓸쓸함이 벽화보존각으로 향하게 했다. 이번엔 벽을 잃은 벽화들의 쓸쓸함이 다시 극락보전으로 향하게 했다. 다시 극락보전에 서서 마음속에 담아 온 벽화들을 빈 벽에 붙여보았다. 500년 전의 법당이였다.

당연히 있어야 할 것 같은 산과 당연히 흘러야 할 것 같은 강물처럼 무위사는 월출산 기슭에 있었다. 무위사를 찾는다면 미술관에 가는 기본으로 길을 나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고려불화를 몰라도 좋고, 조선불화를 몰라도 괜찮다. 무위사에 걸린 작품들은 불신으로부터는 볼 수 없는 작품들이기 때문이



아미타여래삼존벽화가 있는 극락보전 내부.

### 무위사 가는 길

호남고속도로 광산IC에서 13번 국도로 송정, 나주를 거쳐 무위사 진입로로 접어들어 3km정도 가면 무위사다. 대중교통은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강진행(20분 간격)이나 해남행(20분 간격) 직행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성전면에서 하차, 1시간 20분 정도 소요.

## 길상사 불교대학 개설 2010년 신입생 모집

도심 속의 아름다운 산사,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 불교대학을 엽니다. 불교에 대한 바른 지견을 갖추고 수행의 경륜이 깊은 법사진이 불교 전반에 대한 심도 있고 명쾌한 강의를 통하여 정법의 이해와 바른 수행의 길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 학 제 : 1년 2학기제 (3월 3일 개강)
- 교 수 : 정화스님, 덕현스님, 남전스님, 이평래, 김재성, 서재영, 홍가이 외
- 과 목 : 불교개설, 불교수행, 기초신행, 초기불교, 대승불교, 비교종교, 대승경전 강설, 선의 역사, 선어록, 불교문화예술
- 일 정 : 주간반 - 매주 수요일 낮 2시 ~ 5시  
야간반 -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반
- 수강료 : 1년 40만원
- 대 상 : 불교의 바른 이해와 수행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신 분 200명 (선착순)
- 문 의 : 종무소 02)3672-5945 / www.kilsangsa.or.kr

※ 불교대학의 심도 있는 강의를 따라갈 수 없는 분을 위해 마련한 기초과정도 있습니다.

- 기초교리 : 매주 화요일 2시 / 3월 2일 개강
- 토요법담 : 매주 토요일 2시 / 3월 6일 개강

‘현재의 나 자신은 과거의 나 자신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달라져야 한다. 그래야 날마다 새로운 날일 수 있다.’  
- 법정스님 『아름다운 미우리』 卍

# 지금의 비로 그대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가마을



## 민속죽염 21년전통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 수행자들의 정성으로 만든 자연발효식품

100% 순수 국산공으로 만들었습니다.  
(생산지: 경북 영주)

우리 땅에서 자란 콩으로 빚은 북메주는,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열이 배어있는 순수자연 발효식품입니다. 자연에 의존하여 만들어지는 전통 메주는 햇살과 바람의 숨결로 말려지고 다양한 미생물에 의해 숙성되는, 하늘의 기운을 머금은 자연이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 ▶ 특징

- 국산콩을 가마솥에 장작불로 삶아 나무틀에 한장 한장 정성으로 넣어 만든 **수공메주**입니다.
- 발효균을 인공적으로 주입하지 않고, 전통 방식 그대로 자연발효로 띄워서 깊고 깔끔한 맛이 납니다.



서울법당 : 02)742-0172 대구법당 : 053)425-3063  
포항법당 : 054)261-2231 울산법당 : 052)211-2161  
부산법당 : 051)514-3566 대전법당 : 042)862-5539